

농협계좌 '대포통장' 오명 벗었다



노령층 이용률 높아 보이시피싱범죄자 표적
통장 개설 까다롭게 하고 이체한도도 줄여
점유비 2013년 42%서 지난해 5%대로 '뚝'



“안녕하세요 검찰청입니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가 노출돼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그놈 목소리’의 그놈이 즐겨 쓰던 대표적인 ‘대포통장’ 농협 계좌가 오명을 벗었다.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을 까다롭게 하고, 계좌 이체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을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거둔 결과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23일 “금융사기의 도구가 되는 대포통장 점유비를 2013년말 41.5%에서 2014년말엔 14.2%로, 2015년 5%까지 대폭 감소했다”

고 밝혔다. 대포통장 점유비는 지난 2013년에 보이시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이 10개라고 하면 그 중 4개 이상이 농협 통장이었음을 뜻한다. 이는 계좌 개설 과정에 그 목적을 확인하는 ‘거래목적 확인’을 강화하면서 이룬 성과다. 과거 보이시피싱의 표적이 되는 노인들이 농협 계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범죄자들이 농협 대포통장을 선호했다.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노숙자 등이 돈을 노리고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포통장을 개설하곤 했는데 농협이 이 과정을 까다롭게 한 것이다.

농협은 또 평소 계좌이체를 이용하지 않던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많은 돈을 계좌이체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과거 1년 동안 모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1년 이상 계좌이체 실적 없으면 70만원 이상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이시피싱 녹음 파일을 농협 은행원에게 밀리 알려주는 ‘그놈 목소리 공개’ 제도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월출산관광호텔에서 이 지역 관내 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보이시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했다. 전남농협은 농업인 어르신들에게 수법이 날로 지능화돼 피해가 늘고 있는 보이시피싱 전화사기 등 전반적인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알렸다. 또 농협 사기대응팀 송재철 차장을 초청해 다양한 피해 사례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이시피싱 수법 등을 내용으로 강의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이번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농민 조합원 및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다양한 홍보도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95.12 (-1.69)	금리 (국고채 3년) 1.51% (0.00)
↓ 코스닥 689.39 (-2.12)	↑ 환율 (USD) 1161.20원 (+7.60)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범위 확대

고졸자도 포함...광주·전남·전북 묶어 이전지역으로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범위를 늘리는 내용으로 혁신도시법이 바뀌어 작년 12월 말 공포된 데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고졸자)도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지역의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전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도’로 규정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권’, 광주시와 전남·북도는 ‘광주·호남권’으로 묶어 이전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 혁신도시가 소재한 전남과 함께 광주나 전북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졸·고졸자도 지역인재로 우선채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예고는 5월 1일까지 계속되며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광주서 협력사 채용박람회

5개권역 순회 광주는 4월 21일...325개사 1만8천명 채용

현대기아차가 23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5개 지역서 차례로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안종영 동반성장위원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막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박람회는 협력사들이 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현대기아차가 강소를 제공하고 행사 기획·운영 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부품, 정비·판매, 설비·원부자재 등 분야의 325개 협력사가 참여한다. 행사는 이날 수도·충청권(서울 코엑스)을 시작으로 ▲31일 대구·경북권(대구 엑스코) ▲4월 21일 호남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월 28일 울산·경주권(울산 대체육관) ▲5월 10일 부산·경남권(창원컨벤션센터) 등 5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현대기아차는 전국적으로 약 2만500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와 연계해 채용원 인원을 포함해 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19일부터 협력사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hkjobfair.career.co.kr)를 오픈하고 참가 신청 및 협력사별 현장 예비 면접 사전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3일 광주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의, 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애로 청취

광주상공회의소는 23일 광주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김상열 회장과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지역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하고 성실 납세협력·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 상공인들의 세정애로에 대한 건의와 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광산구 소재

기업인을 위한 광산세무서 신설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정확관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광산구의 납세민원, 세수, 세원규모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 본청과 행정자치부 소관부서,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빠른시일 내에 광산세무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명품감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납세 우수기업 및 기업인 포상 확대, 중견기

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자간 가속상 각 허용, 성실신고지원제도 안내 및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완화 등이 건의됐다.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역 경제가 어렵지만 광주청에서는 납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영으로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확대하고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시아나 항공 2연속

국가고객만족도 1위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항공 부문 1위를 달성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국내항공부문’ 및 ‘국제항공부문’에서 2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항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NCSI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 품질 평가 조사다. 최근 1년 사이 동일 항공사를 이용해 편도 기준 4회 이상 탑승한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을 통해 조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조사에서 ▲퍼스트 석을 장착한 A380항공기 추가 도입 및 주요 노선 배치 ▲A350, A321 NEO 등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세계 항공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의 정규 회원사로서 항공 네트워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이번 수상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주신 고객분들께서 직접 주신 상”이라며 “향후에도 고객만족 실현의 경영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중기청-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약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대학 창업지원단은 23일 창업-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영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과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홍기학 광주전남 창업보육협회 부회장, 박종안 조선대 창업지원단장, 최용석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은 이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창업-벤처기업 발굴 육성지원 ▲협업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참여기관 지원사업, 설명회 등 정책정보 공동 홍보 ▲혁신센터 추천기업 광주전남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우대 ▲지역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동 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군민의 작은 노력에도 귀 기울여 줍니다.”

의회

고공군의회

http://www.igoheung.com